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

농촌진흥청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 시점 2026. 11. 24.(화) 11:00 / 11. 25.(수) 조간 배포 2026. 11. 24.(화) 06:00

가을비로 파종 늦어진 사료작물, 얼기 전 눌러주고 배수로 정비

- 10월 강수량 평년의 1.7배…파종 늦어진 사료작물, 습해·동해 주의
- 땅이 얼기 전 눌러주기…배수로 정비해 물 고임 막아야
- 생육 부진한 곳은 표시해 두고, 이듬해 봄 다시 살펴 추가 파종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지난 10월 잦은 비로 겨울 사료작물 파종이 늦어진 농가에 땅이 얼기 전 눌러주기와 배수로 정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.

올해 10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8.5mm로 평년(63.0mm)의 약 1.7배였다. 특히 10월 중하순에 비가 자주 내려 사료작물 파종이 늦어졌다. 파종이 늦으면 뿌리가 충분히 자리 잡기 전 겨울을 맞기 때문에 물이 고여 생기는 피해(습해)와 얼어 생기는 피해(동해)를 보기 쉽다.

눌러주기는 트랙터에 롤러를 달고 천천히 이동하며 흙과 뿌리를 밀착시키는 작업이다. 뿌리가 들뜨는 피해를 줄이고 밑동에서 새 줄기가 나오는 분얼을 촉진한다. 흙이 지나치게 젖어 있거나 얼어 있을 때는 작업을 피한다.

배수로의 흙과 이물질을 걷어내고, 논 안쪽의 물이 바깥 배수로까지 잘 빠지는지 확인한다. 특히 청보리와 호밀을 재배하는 논에서는 물이 고이는 곳이 없는지 살핀다.

겨울이 오기 전에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거나 싹이 나지 않은 곳을 표시해 둔다. 이듬해 봄에는 땅이 녹은 뒤 생육 상태를 다시 살펴 필요한 곳에 씨를 추가로 뿌린다.

추가 파종 시기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다. 봄에는 분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파종량을 20~30% 늘리는 것이 좋다.

국립축산과학원이 실시한 2025년 전국 실태조사에서 배수로 설치율과 눌러주기 실시율은 42~45% 수준이었다. 월동 전후 재배 관리 기술을 적용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지의 건물수량(수분을 제외한 생산량)은 헥타르당 8,064kg으로,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재배지(5,217kg)보다 약 55% 많았다.

농촌진흥청은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파종이 늦어진 재배지를 중심으로 생육과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월동 전 관리 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. 이듬해 봄에는 겨울을 난 사료작물의 생육 상태에 맞춰 추가 파종 등 재배 관리를 지원한다.

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“파종이 늦어진 농가는 땅이 얼기 전에 토양 상태를 확인하고, 배수로가 막힌 곳부터 정비해 주길 바란다.”라며 “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겨울철 피해를 줄이고 이듬해 봄 풀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1. 동계 사료작물 월동 전 재배관리 기술 및 적용 효과
붙임 2. 동계 사료작물 월동 전 재배관리 요령
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	책임자	과 장	이상훈 (041-580-6740
		담당자	연구사	고하늘 (041-580-6771)

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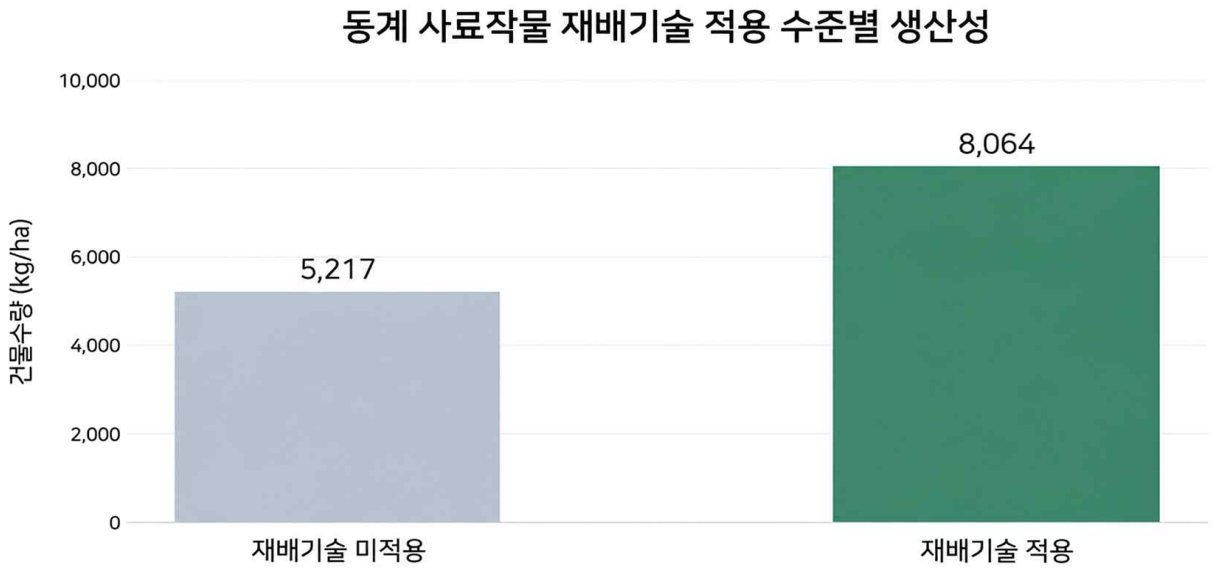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**동계 사료작물 월동 전 재배관리 기술 및 적용 효과**

□ 재배기술 적용에 따른 동계 사료작물 생산량 변화

○ 재배지 관리기술에 따른 동계 사료작물 생산성 변화

- 월동 전·후 재배관리기술 적용할 시 IRG 건물수량은 8,064kg/ha로 미적용 농가 대비 건물수량(5,217kg/ha) 약 52~56% 증가



□ 동계 사료작물 재배관리 참고 사진



<배수불량 재배지>



<배수로 정비 재배지>



<월동 전 동계 사료작물 생육 상태 양호>



<월동기 동해 피해 모습>

붙임 2 **동계 사료작물 월동 전 재배관리 요령**

동계사료작물 월동 관리

눌러주기 & 배수로 정비



동계사료작물 재배지 배수관리

! 문제: 봄 비, 녹은 눈, 그리고 과습 피해

✓ 해결책: 배수로 정비 (막힌 곳 뚫기)



체크 포인트: 논의 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가도록 유도하세요!

작업 후 확인 □ 물꼬 열기 □ 눌러주기